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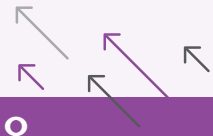
농업,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다!

농업주체별 세미나 시리즈 ⑥

젊은 농업, 미래 농업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젊은 농업, 미래 농업 세미나 운영 개요

- 추진 목적**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전략' 수립 및 '대토론회'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 대토론회 대비 분위기 조성
 - 우리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주체의 육성과 역할 및 농업의 비전과 미래 성장산업화 확대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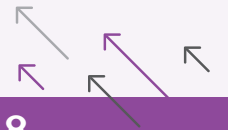
일시 2014. 10. 23(목) 14:00 ~ 17:30

장소 한국농수산대학 대강당(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

주최 / 주관 한국농수산대학 / 농림축산식품부

세부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제1부 개회 및 기조 강연		
14:00~14:10	개 회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14:10~15:00	기조강연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이다	성진근 교수
제2부 주제 및 사례발표		
15:00~15:20	일류가 망하지 않는 한 농업은 망하지 않는다	양기조 대표
15:20~15:40	산머루농원의 6차산업	서충원 대표이사
15:40~16:00	우리농업의 미래를 이끌 농업주체의 육성과 역할방안	조기옥 (전북대 교수)
16:00~16:20	나의 꿈 나의 미래	남광민
휴 식		
제3부 종합토론		
16:30~17:30	좌장 : 남양호(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패널 : 김연백(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김태운(교육부 직업교육과 장학관), 마상진(농촌경제연구원), 채상현(천안연암대학 교수) 현청규(한농대졸업생동문 회장)	
17:30	폐 회	



젊은 농업, 미래 농업 세미나 주요 내용

1 기초강연

1. 강연내용 :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이다

발표자 : 성진근 교수(충북대학교 명예교수)

2 주제발표

1. 일류가 망하지 않는 한 농업은 망하지 않는다

발표자 : 양기조 대표(용추농업회사법인)

2. 우리농업 미래를 이끌 농업주체의 육성과 역할 방안

발표자 : 조가옥 교수(전북대학교)

3 사례발표

1. 산머루농원의 6차산업(졸업생성공사례)

발표자 : 서충원(산머루농원 대표이사)

2. 나의 꿈 나의 미래(재학생사례)

발표자 : 남광민(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4 토론회

1. 주제 : 미래농업의 성장동력

2. 운영방향 :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3. 토론자

• 좌장 : 남양호(한국농수산대학 총장)

• 패널 : 김연백(농식품부 경영인력 과장), 김태운(교육부 직업교육 정책과 장학관)

마상진(농촌경제연구원), 채상헌(천안연암대학 교수)

현청규(한농대졸업생동문 회장)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이다

충북대 명예교수, (사)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 **성진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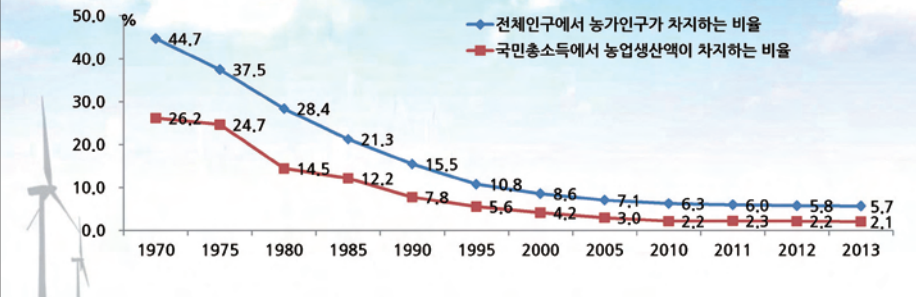
1. 한국농업의 위기와 미래성장산업화
2. 미래성장산업화로 이끄는 농업환경 변화
3.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전략

1. 한국농업의 위기와 미래성장산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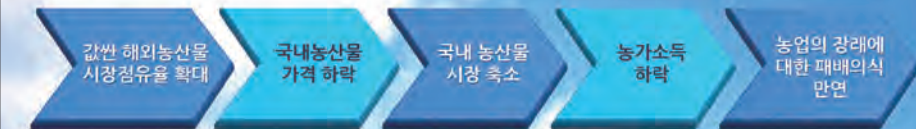
Fact 1.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의 과도한 위축 진행

산업화, 자본주의화, 이익사회화를 의미하는 근대화 과정에서
농업은 “돈 되지 않는 산업”으로
농촌은 “떠나지 못해 남는 사람이 사는 땅”으로 변질

- 40년간(1970~2013) 농가인구/전인구 비율 : 45.0% → 5.7%
- 농업생산액/GNI 비율 : 26.2%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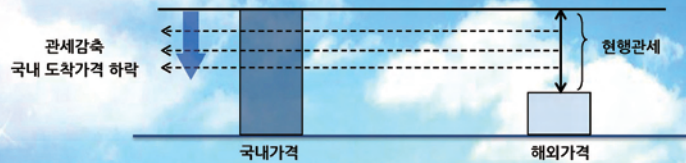
Fact 2. 개방화·국제화과정에서 농민의 패배의식과 냉소적 분위기 만연



- **시장개방 확대로 값싼 해외농산물이 밀려들어오는데 한국 농산물 설 자리 있는가?**
- 쌀 관세화 개방, EU,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로 자유무역 확대
- **농사지을 사람은 줄고 노령화되고 있는데 누가 미래산업으로 이끌 것인가?**
- 전체 농림어업취업자 수 10년간 22% 감소 : 1,950천명('03) → 1,520천명('13)
- 40세 이하 노동력 비중 감소 10년간 2.4%p 감소 : 9.0%('03) → 6.6%('13)
- **소득성장이 정체상태인 농업을 어떻게 수지맞는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것인가?**
- 농업소득의 정체 내지 감소 : 호당 10,572천원('03) → 호당 10,035천원('13)
- 농가소득에 대한 농업소득 비중 : 39.3%('03) → 29.1%('13)
- **과도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위축 계속 →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 농림예산 총액이 농업희생투자액? 42조원('92~'98) → 45조원('99~'02) → 119조원('03~'13년)
- 국가예산에서 농식품 예산 비중 : 21.1%('95) → 9.8%('00) → 6.2%('05) → 5.9%('10) → 5.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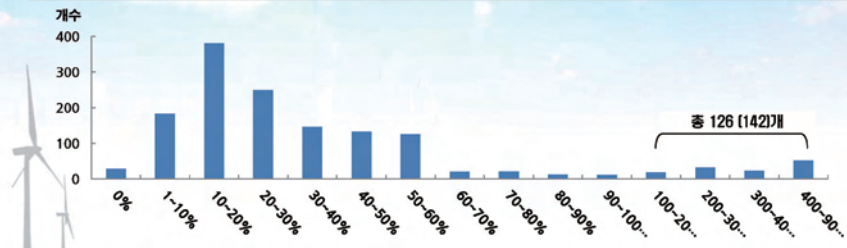
가능성 ①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관세의 점진적 하락 → 해외농산물의 국내도착가격 하락



관세 하락에 따른 주요농산물(과일,채소, 축산물) 수입원가 20~30% 하락에 대한 대응전략 → 가격경쟁력의 비교열위 극복을 위한 비가격적인 가격경쟁력 강화

관세구간 별 농산물 품목 수



Fact 3. 수입원가 20~30%하락은 수입량 증가에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

환율 하락 ▼

1,314원(2001) ⇨ 930원(2006)

수입원가 31% 하락 → 농산물 수입량 59% 증가(10,111백만\$⇨16,101백만\$)

환율 상승 ▲

930원(2006) ⇨ 1,135원(2010)

수입원가 22% 상승 → 농산물 수입량 60% 증가(16,101백만\$⇨25,387백만\$)

구분		양허관세 (2004)	양허관세 부과 가격(A) (원/kg)	무관세가격(B) (원/kg)	수입가격하락률 (%)
채소류	배추	27	316	249	21
	딸기	45	2,230	1,538	31
과일류	사과	45	1,659	1,144	31
	배	45	1,405	969	31
	포도	45	2,466	1,701	31
축산물	쇠고기	40	4,743	3,388	29
	돼지고기	22.5	2,574	2,101	18
	닭고기	18	1,553	1,316	15

가능성 ② 노동절약적 신기술과 기계화로 대농경영으로의 길 연다?

Fact 4. 철분코팅 직파재배의 노동력 절감효과 사례 (2014 전남 보성군 3만평 시험재배 경우)

인건비 절감 효과(종자준비~이앙완료 시 까지)

작업단계별	직 파 재 배		관행 기계이앙
	무논점파	담수산파	
종자준비, 육묘상자 파종, 육묘관리, 운반작업, 육묘상자 정돈 및 보관	2,750원 (남0.1,여0.2/시간)	2,750원 (남0.1,여0.2/시간)	61,750원 (남2.0여4.9/시간)
직파	4,760원 (남0.2여0.3/시간)	1,250원 (남0.1/시간)	0
이앙	0	0	34,750원 (남2.0여1.3/시간)
보식	7,500원 (여1.0/시간)	3,750원 (여0.5/시간)	13,500원 (여1.8/시간)
계	15,000원 (남0.3,여1.5/시간)	7,750원 (남0.2여0.7/시간)	96,500원 (남4.0여8.0/시간)
비율 (관행기계이앙대비)	15.5%	8.0%	100%



주)원지 인건비:남 125,000원,여 75,000/10시간(남12,500원, 여7,500원/시간)

- 인건비 절감 효과는 관행 기계이앙 대비 무논점파는 84.5%, 담수산파는 92.0%이었음
- 인건비 절감 효과로 인한 쌀 생산비 20~22% 절감 : 12,000~13,000원/80kg 절감 실현

Fact 5. 생분해 필름에 따른 범씨 점착하여 파종하는 바코시스템 적용으로 쌀 생산비 29% 절감 사례(서산 현대농장의 경우)

정지작업, 종자최아, 상토, 육묘, 이앙, 제초작업 생략



* 작업량 : 10,000m² / 시간 이상

초생력(超省力), 친환경 쌀 생산으로 편농(便農), 후농(厚農) 실현

Fact 6. 전산관리프로그램 활용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 양돈산업의 '피그플랜', '돈컴리' 등 전산관리프로그램 이용 효과
PSY(모돈 두당 이유자돈 수) 18.1두 → 22.6두, 25% 향상

Fact 7. 첨단 유리온실에 의한 과학영농(온도, 습도, 광관리)으로 생산성과 품질 향상

비닐온실

하품 20%
상품 50%
중품 30%

6.6kg/m²

수동형 유리온실

하품 10%
상품 50%
중품 30%

25~30kg/m²

자동화 유리온실

중품 10%
상품 90%

60kg/m²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방향은

- 소유지 확대에 의한 경영규모의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첨단기술 활용과 농기계 공동 이용체 제 확대에 의한 경영공동화 실현
⇒ 10만명의 40세 미만 젊은이가 주도하는 영농기업이 180만ha 농지를 공동경영하는 체제 지향
- 중저가 상품시장 보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고가시장 지향적 유통체계 확보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ICT(정보통신기술) 접목 유통시스템으로 시장 확장

2. 미래성장산업화로 이끄는 농업환경 변화

Fact 8. 농식품 소비트렌드의 혁명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 농식품시장 변화의 메가트렌드 → 안전성, 건강기능성 가치 추구

- 친환경유기농식품 세계시장 : (2010)600억 달러 → (2030)60조달러
- 기능성식품(비만과 성인병 대체) : (2008)736억달러 → 연평균 9.2% 성장

생산성 향상 위주에서 차별화된 가치 추구적인 상품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

Fact 9. 농산물 시장과 수요가 변하고 있다

대량시장(Mass market)시대가 정밀시장(Precision market) 시대로 진화

- 가격경쟁시대가 품질과 서비스 경쟁시대로 변화
- 불특정 다수 고객 지향적인 대량 생산·유통시대에서 목표(Target) 고객 지향으로 시장 변화
- 농식품 선택기준이 가격보다는 안전성, 맛 등 비가격적 요인 중시
 - 핵가족화,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고품질, 소포장, 반가공 농산물의 수요 증가
 - 가락시장의 특품과 하품의 가격 차이 : 배추 6배, 양파 5배, 딸기 4배

소득향상과 수명연장에 따른 농식품 수요의 고급화·안전성 가치 추구화

구분	우리나라	일본
안전성	41.8	70.0
가격	12.7	6.0
식량부족가능성	6.0	3.8
영양가	12.3	5.0
품질, 맛, 외관	20.6	5.0
기타	0.7	1.0
특별히 관심없다	4.7	5.0
모르겠다	3.7	1.0

Fact 10. 먹거리 이외 용도로의 농업 신수요가 커지고 있다

- 지구촌의 자원위기,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산업의 가치 부각
 - 바이오매스에서 대체에너지, 공업용 원료, 친환경소재산업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 식량안보적 기능에 덧붙여서 에너지안보기능 등으로 농업분야의 신가치영역 확대
- 생명산업으로서의 영역확장과 농업의 가치 재 평가
 - 기능성 의약품 소재산업, 종자산업, 미생물, 애완, 관상, 동식물 산업 등에서 고부가가치 산업화

Fact 11. 농산물 수출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 세계 농식품 시장의 고급화와 안전성, 건강기능성 가치 추구적인 메가트렌드 변화
 - 소농경쟁적인 한국농산물의 가치경쟁력에 의한 신시장 접근기회 증대
-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상승 : 한류와 K-pop 열풍 속에서 K-food에 대한 인식 변화
 - 선진국(미국, EU 등)시장, 개도국(중국, 동남아, 체제전환국)에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 중국 고소득층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일본 청과수출 시장 수출 수요 증가
 - 시장개방 확대로 잃게 될 내수시장 몫(Share)을 수출시장 확대로 상쇄
- 서울에서 비행거리 2시간 내에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60여개로 큰 시장잠재력

Fact 12. 시장개방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 가격 경쟁력상의 절대적 비교열위를 비가격경쟁력 강화로 극복

[주요 농산물의 국내 외 가격차와 시장점유율 비중]

순위	품목	2004년 양허관세율(%)	국내가격 /수입원가(배)	수입/국내공급량 비중(%)		
				1990	2002	2011
1	미국	개방유예(5)	-5.7	2.1	3.0	7.1
2	느타리버섯	40.5	4.6	0.0	0.00	0.00
3	수박	45.0	2.8	0.0	0.00	0.01
4	파	27.0	2.0	0.0	1.3	5.1
5	닭고기	18.0	1.6	33.9	24.4	22.3
6	소고기	40.0	2.1	45.1	66.5	57.2
7	사과	45.0	2.1	0.0	0.00	0.03
8	호박	27.0	1.7	0.0	1.1	6.3
9	복숭아	45.0	1.8	0.0	0.00	0.01
10	배추	27.0	1.3	0.0	1.7	14.3
11	상추	45.0	1.4	0.0	0.1	2.3
12	참깨	630.0	1.9	5.1	72.6	86.6
13	콩	487.0	1.8	77.7	92.8	93.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2013.12

3.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전략

1 글로벌 수출농업 지향

시장개방 확대로 잃게 될 내수시장 몫(Share)을 해외시장에 찾자

- 한국농산물의 시장규모 : 2,000만명 100% 부양(5천만명×칼로리자급률 40%)
- 최근 10년간(2002~2012) 23,621천명에서 20,552천명으로 연평균 307천명씩 감소
- 농식품 10억달러 증가시 생산파급효과 2.4조원, 고용증대 9,600명
- 매년 30만명 해당규모의 수출 신시장 개척 ⇒ 매년 6억달러 신시장 확보 목표

Fact 13. 중국의 수입식품 수요 증가 : 최근 3년간(2010~2013) 연평균 18% 씩 상승



한국 상품/중국 수입 농식품 비중이 0.72%에 불과하므로 성장가능성 지대
(7,600억원 / 106조원)

전략 1 수출업체의 수익성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발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시책 개발

- 현지 소비 선호, 음식문화 등을 반영한 상품개발, 포장·디자인 개선

시장개척,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촉행사 적극 지원

- 대형매장별 한국농식품 판촉행사 지원
- 미개척 지역의 유통망 개척 위한 안테나샵(Antenna shop) 확대

전략 2 두 경로(Two-track)에 의한 수출전문기업 육성

한국 농가는 누구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가?

▶ 수출국 농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품목별 유통기업과 경쟁하는 수출전문기업 육성

▶ 제1경로 : 협동조합의 수출전문기업 육성

- 네덜란드 화훼류 전문 판매자회사 - 알스미어(Aalsmeer)
- 채소·과일류 전문 판매자회사 - 그리너리(Greenery)

▶ 제2경로 : 중국의 龍頭企業형 민간전문 수출기업 육성

- 품목별 수출업체를 연합, 한국형 제스프리 구현 위한 수출선도주체 육성

2 농업영역의 다양화와 확대

식량생산업에서 생명공학을 매개로 생명소재산업으로 변신

- 기능성 신의약소재산업, 종자산업,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친환경소재 산업화

소득증가와 인구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 유기농 식품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단순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및 관광 등 2,3차 산업과 융복합화

-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가소득 증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바이오원료 생산업으로 에너지안보산업화

- 바이오디젤과 에탄올 생산원료로 유채+고구마 작부체계 실현

IC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신시장 확보

- 내수유통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농가 수취가격 제고
- 국내외에 크게 성장하고 있는 직구(직접구매)시장 접근 위한 K-food 판촉시스템 구축

덴마크의 부흥과 그룬트비히와 달가스의 도전

-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 황무지를 옥토로 바꾼 달가스 대령의 개간과 방풍림 조성

- ✓ 국토면적 : 43,094km², 한반도의 1/5
- ✓ 인구 : 562만명(2013)
- ✓ 1인당 GDP : 56,210달러(2012)
- ✓ 농업취업자 1인당 경지면적 : 43.1ha
- ✓ 농수산업의 GDP 비중 : 1.2%



- 전체국토의 전체 국토의 66%가 농경지로서 농축산업 위주의 농업생산 형태
- 특히 덴마크의 돼지사육 수는 1,293만 두로서 세계적인 고품질육으로 평가 받고 있음(2013년 전체 수출의 7% 차지(40억 달러))

산업위축의 절대적 위기상황에서 한국농업의 국내외 신시장 창출과 영역확장

창조경제는 기술혁신과 시장혁신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의 경쟁력이다

“인류가 망하지 않는한 농업은 망하지 않는다.”

용추 농업회사법인(주) 대표 양 기 조



1. 사업장소개
2.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가?
3.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를 찾아라!
4. 농업은 비전이 있다
5.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

1. 사업장소개

용추농업법인 현황

- 사업장명 : 용추농업회사법인(주)
위 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마로 75
- 주요활동(대표)
 - 전) 경남친환경농업인회장
 - 현) 한국유기농협회 함양지회장
- 수상실적
 - 대통령상 수상1회 / 국무총리상1회/ 장관상4회 / 경남친환경농업대상
- 사업장 현황

총면적	건축면적	벼 육묘 공장	1일 건조 능력	저장 능력	미생물비 료공장	2013년 매출	순 수익
10,908 ㎡	2,723㎡	991㎡	80톤	2,000 톤	396㎡	82억원	2억5천

1. 사업장소개

용추농업법인 현황

- 연 혁
 - 1999. 05. 친환경농산물표시사용 신고(저농약)
 - 1999. 09. RPC건립, 유통(안의미곡처리장)
 - 2007. 04. 용추농업회사법인(주) 설립
 - 2010. 12. 미생물비료 공장 설립(쌀겨 및 부산물)
- 법인 조직 현황 (2014년 현재)
 - 생산자 대표 4명/총무 4명/ 감사 2명/ 단지반장 16명
 - 참여농가 및 친환경인증면적 : 440호, 235,1 ha

인증구분	농가수	면적(ha)	작물구분(ha)				수매가격 40kg/원
			곡류	채소류	과수	특작	
합계	440	235,1	235,1	1.05	0	6,3	1등급
유기농	130	74,3	74,3	0,6		2	78,000
무농약	310	160,8	160,8	0,45		4,3	68,000

2.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적성에 맞는가?

(내가 선택한 분야가 내게 맞는가?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

한 분야에 집중과 열정을!

(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중도 포기는

(시간과 금전적 손실, 재도약에 많은 영향을)

◆ 목표를 설정 하라

사업계획서를

-20년 후를 목표로
5년 단위로 세워라
(목표와 계획성 없이는
성공도 없다.)



◆ 무엇을 선택 해야 하나!



품목선택

-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
- 기후변화, 토양, 환경, 특성화 된 작물



- 품목은 단년생, 다년생을 고려

- 품종선택 조생종, 만생종

(노동력을 분산함으로써

지출은 감소 소득증대)

◆ 많은 투자는 삼가하라



지역 행정의 시설과 기구를

최대한 이용

(농기계 임대사업소/토양분석 등.)

농업 정보는 교육 및 정보지를 최대한 활용

(농업에 관련된 농사 정보지 등은 행정기관의 도움 요청
무료로 배분 받을 수 있음)

3.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를 찾아라!

나를 이끌 수 있는
선도 농가를 찾아라!
(20년 **노하우 전수** 년)



◆ 시간계획을 세워라

새벽 시간을 활용하여 하루 일과를 시작하라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건강관리를 해라
(일과 운동의 구분)

영농 기록은 필수다
(기록이 재산이다.)



◆ 경영 마인드를 키워라

-지역에 안주하지 말고

전국 단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여러 가지 정보와 기술 습득은 자기 개발로 이어지고,
인맥은 또 다른 나의 자산)

- 판매는 직거래 30% 확보

- 나머지는 안정되고 다양한 소비처 개척
(공판장, 직거래 단체 등)

4. 농업은 비전이 있다

-인류가 망하지 않는한 농업은 망하지 않는다
-생명산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자기 일에 대하여 자부심과 장인정신
-정년 퇴임이 없다

-온난화를 기회로 삼아라

기후 변화에 따른 발 빠른 대처
(예:사과의 경우 재배지 북상)

관행농사 방법은 전망이?

성공사례

품목	면적	생산량	연매출	순수익	농가명
사과	4,500평	62톤(3,100상자)	1억9천	1억4천	함양 김철규
파프리카	2,500평		6억8천	2억4천	진주 문성근
곡류	30,000평	40Kg(1,500가마)	1억1천7백	8천7백	용추법인

특징: 전문교육과정수료, 보카시 농법도입, 혼을 담은 농사, 안정된 판로확보

특징: 전문교육과정수료, 과감한 투자, 혼을 담은 농사, 안정된 판로확보

특징: 기계화로 인건비 절약, 비료 자가생산, 안정된 판로확보

일본의 사례 : 10년전에 농사법인화 하여 3명이 60ha경작 (30ha 위탁 / 30ha 자경)
 특징 : 30ha에서 생산된 쌀 전량 직거래
 (시범 사업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기계, 기구 100%보조)


5.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

***일촌 일품화 운동전개**
 예)쌀농사 -> 포도농사로 전환 -> 와인축제 -> 먹거리개발(건포도, 주스)
 -> 체험관광 -> 농가민박으로 연계 회원제로 운영 -> 농가 소득창출

학사 농업인 양성 대안
 (도립대학을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전문 대학으로...)

예)일본의 경우: 45개 현이 2년 단기 대학으로 운영하며
 100명 정원에 85명 이상이 농촌에 정착
 교육 방법은 오전에 이론, 오후에 실습위주
 (개인 실정포가 있음)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맺음



- ◆ 목표에 목숨 걸고 성실하게 하면 성공한다
- ◆ 나만의 매력을 갖추어라
- ◆ 미쳐야 산다

용추농업회사법인(주)



친환경 배 가공공장(1)



친환경농업 교육장(2)

용추쌀

용추농업회사법인(주)



미생물배양시설(원균)(3)



미생물 펠릿 생산시설(4)

용추쌀

용추농업회사법인(주)



친환경비 공동방제(7)



공동퇴비장(8)

용추쌀

용추농업회사법인(주)



미생물 비료 생산 시설(5)



토양활성제제 보카시 공급(6)

용추쌀

용추농업회사법인(주)

용추쌀



미생물 농법시범(9)

사용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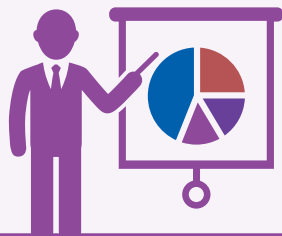
- 1) 모내기 전후에 과잉 발생하는 유기산을 소비 및 활착을 도와주기 위함.
- 2) 출수1개월 전후에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소비하여 생육을 도와준다.
- 3) 가스로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유용물질로 변화시켜 비료량을 줄일 수 있다.
- 4) 등숙율을 높이고 식미향상을 높인다.

효과

- 1) 유기농업의 양파 후작으로 재배하는 고품질쌀 생산.
- 2) 농자재비 절감
- 3) 사용량: 광합성균 할성액6L 모넨다음1회
- 4) 비 용: 700평 /3만원 유박4포/27천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 농업주체의 육성과 역할 방안

전북대학교 교수 조 가 옥



1. 우리 농업의 현실
2. 미래 농업주체의 역할
3. 미래 농업주체의 육성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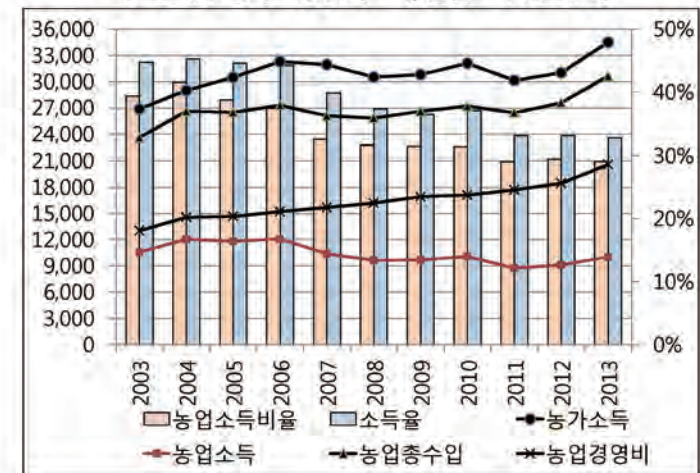
1. 우리 농업의 현실

- 농업
 - 생산성(토지, 노동, 자본), 수익성 정체 상태
 - 경영주 연령층별, 규모계층별, 품목별 생산성, 수익성 차이가 매우 큼
 - 지역별로 품목이 주산지화 되어 있음
 - ⇒ 우리 농업 누구에 의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 농가
 - 초고령화되고, 젊은 농업주체가 적어 미래농업주체가 부족하다.
 - 농가별 경영계층 차이가 크다(양극화 되어가고 있음)
 - ⇒ 미래 우리 농업을 담당할 주체는 누구이고 어떻게 육성해야 하나?
- 농촌공간
 - 농촌공간이 농업인만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란 인식이 확대, 농촌공간의 다면적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 그러나 농업인의 감소로 갈수록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 누가 농촌공동체를 이끌어 갈 것인가? 농업산업과 연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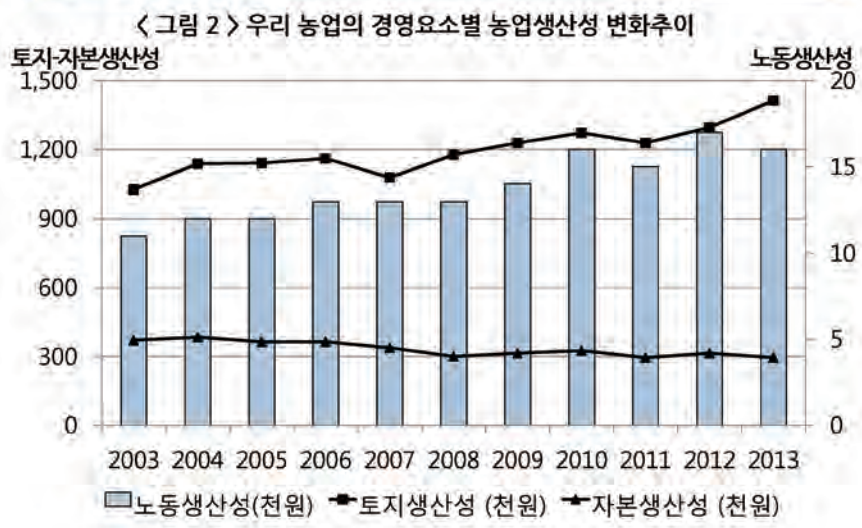
1. 농업 수익성, 생산성 변화추이 : 정체상태에 있음

- 농업총수입 정체 : 농산물가격, 단위면적당 수량 정체, 품질의 문제?
- 농업경영비 상승 : 재료비, 인건비 등 상승
- 농업소득 정체, 감소 : (총수입 정체+농업경영비 상승)

<그림 1> 농가호당 농가소득, 농업소득 변화추이



-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 증가에서 정체 추세
- 자본생산성 : 정체에서 하락 추세



2. 농가의 경지규모별-연령별 농업수익성과 생산성 비교

- 경지규모별, 경영주연령별 수익성의 차이가 크다.

〈표 1〉 경지규모별-경영주연령별 수익성 비교(2013년)

구분	농업노동 1시간당 농업소득 (천원)	농업노동 1시간당 농업총수입 (천원)	농업자본 100만원당 농업소득 (천원)	농업자본 100만원당 농업총수입 (천원)	10a당 농업소득 (원)	10a당 농업총수입 (원)	농업 소득률 (%)
전국	9	27	241	736	772	2,358	32.7
경지 규모별	0.5ha미만	3	12	166	615	839	269
	0.5-1.0ha미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1.5ha미만	133.3%	100.0%	133.1%	106.5%	73.8%	58.9%
	1.5-2.0ha미만	233.3%	116.7%	209.6%	122.3%	98.2%	57.1%
	2.0-3.0ha미만	300.0%	133.3%	275.3%	137.2%	98.3%	48.9%
	3.0-5.0ha미만	233.3%	133.3%	209.6%	123.7%	85.6%	50.4%
	5.0-7.0ha미만	266.7%	141.7%	226.5%	131.1%	64.1%	36.9%
	7.0-10.0ha미만	266.7%	158.3%	233.1%	144.6%	57.2%	35.4%
	10.0ha 이상	400.0%	191.7%	251.8%	136.9%	73.1%	39.6%
경영주 연령별	30-39세	333.3%	191.7%	309.0%	193.7%	47.4%	29.6%
	40-49세	100.0%	145.5%	54.1%	83.4%	82.8%	127.6%
	50-59세	116.7%	172.7%	57.6%	88.2%	113.4%	173.9%
	60-69세	116.7%	154.5%	65.7%	82.7%	115.2%	144.9%
	70세 이상	133.3%	127.3%	107.5%	107.9%	115.2%	115.6%
	70세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경지규모별, 경영주연령별 노동, 토지, 자본생산성의 차이가 크다

〈표 2〉 경지규모별-연령별 농가 생산성 비교(2013년)

구분	노동생산성 (천원)	토지생산성 (천원)	자본생산성 (천원)	노동집약도 (시간)	자본집약도 (천원)	자본구성도 (천원)	
평균	16	1,413	295	87.68	4,793	55	
경지 규모별	0.5ha 미만	8	1,822	193	241.01	9,462	39
	0.5-1.0ha 미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1.5ha 미만	137.5%	81.8%	109.8%	57.5%	74.4%	130.8%
	1.5-2.0ha 미만	200.0%	96.1%	187.0%	46.3%	51.3%	112.8%
	2.0-3.0ha 미만	237.5%	95.8%	186.5%	37.7%	51.3%	135.9%
	3.0-5.0ha 미만	225.0%	79.1%	171.5%	33.1%	46.0%	141.0%
	5.0-7.0ha 미만	275.0%	72.0%	152.3%	24.3%	47.1%	194.9%
	7.0-10.0ha 미만	300.0%	64.3%	153.9%	20.1%	41.7%	207.7%
	10.0ha 이상	275.0%	50.7%	157.5%	17.1%	32.0%	187.2%
경영주 연령별	30-39세	312.5%	52.9%	184.5%	16.3%	28.6%	176.9%
	40-49세	153.3%	111.8%	90.7%	73.0%	123.1%	169.8%
	50-59세	133.3%	132.1%	108.5%	101.0%	121.6%	120.8%
	60-69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노동생산성 = 농업부가가치 / 자영농업노동시간 ○ 토지생산성 = 농업부가가치 / 경지면적(10a)
 ○ 자본생산성 = 농업부가가치 / 농업자본액(100만원) ○ 노동집약도 = 자영농업노동시간 / 경지면적(10a)
 ○ 자본집약도 = 농업자본액 / 경지면적(10a) ○ 자본구성도(자본경비율) = 농업자본액 / 자영농업노동시간

3. 경지규모별-연령별 농가호당 농가소득 구성현황

- 경지규모별, 경영주연령별 농가소득 구성내용은 특징이 있다.

〈표 3〉 경지규모별 농가호당 농가소득 구성내용 비교(2013년)

구분	농가소득 (A)	농업소득 (B)	농업총수입 (C)	농업경비	경업소득	사임외소득	농업소득비율 (B/A)	소득율 (B/C)
0.5ha미만	3220	2110	9026	6916	5619	16366	65%	234%
0.5-1.0ha미만	27992	4680	21,166	16485	3885	11,711	16.7%	22.1%
1.0-1.5ha미만	34830	12244	30130	17885	3124	10023	35.2%	40.6%
1.5-2.0ha미만	37568	17865	41056	23191	3260	7564	47.6%	43.5%
2.0-3.0ha미만	36987	16373	43687	27315	3689	8473	44.3%	37.5%
3.0-5.0ha미만	41627	20095	60874	40779	4150	7135	48.3%	33.0%
5.0-7.0ha미만	56577	28628	89485	60857	4644	9916	50.6%	32.0%
7.0-10.0ha미만	45006	21406	92436	71031	3943	6745	47.6%	23.2%
10.0ha 이상	53129	28840	107848	79009	1821	8787	54.3%	26.7%

〈표 4〉 경영주연령별 농가호당 농가소득 구성내용 비교(2013년)

구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총수입	농업경비	경업소득	사임외소득	농업소득비율	소득율
30-39세	44870	11830	39389	27559	6619	22462	26.4%	30.0%
40-49세	43135	14755	50393	35638	6266	16896	34.2%	29.3%
50-59세	54745	15060	52172	37122	8615	23528	27.5%	28.8%
60-69세	34223	9656	29462	19806	3999	9720	28.2%	32.8%
70세 이상	22088	6857	16669	9813	1529	5466	31.0%	41.1%

4. 농산물은 지역별로 어떻게 배치되었는가?

○ 농산물 생산지는 주산지화되어 있음: 시군단위, 읍면단위로 조직화가 능성이 큼

< 표 5 > 2010년도 농업 총 조사로 본 품목별 재배면적의 누적 시군·읍면동 비교

품목	재배면적 (ha)	누적 재배면적 비율별 시군수(개소)				누적 재배면적 비율별 읍면동수(개소)				
		~20%	~30%	~40%	~50%	~20%	~30%	~40%	~50%	
식량작물	쌀	830,042	11	17	25	34	99	173	262	369
	보리	25,086	2	3	4	6	7	12	19	28
	콩	59,080	6	11	18	29	34	77	139	225
	고구마	23,260	3	7	11	18	12	27	57	112
양념채소	감자	21,878	3	6	9	14	8	17	34	70
	무(노지)	15,859	1	2	3	6	2	6	14	25
	배추(노지)	28,270	2	5	10	16	9	22	44	81
	고추(노지)	43,405	7	14	21	30	50	98	162	248
특용작물	마늘	20,495	3	4	6	7	9	18	29	44
	양파	16,520	1	3	4	6	6	12	21	32
과채소류	참깨	10,798	5	8	14	22	29	67	124	200
	시설수박	10,158	2	3	5	7	6	10	16	26
과일류	사과	4,331	3	5	9	14	6	17	32	61
	시설토마토	30,526	3	4	5	8	11	20	32	50
가축류(천수)	포도	13,800	2	3	4	5	7	13	21	31
	한우	2,681	11	18	26	36	86	150	230	328
	돼지	8,094	7	12	18	26	7	15	33	62
	육계	100,450	7	12	18	24	30	58	98	150

5. 농가의 농업노동력 현황

○ 10년후 누가 우리농업을 담당할 것인가?

< 표 6 > 연령계층별 농림어업 취업자의 변화추이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1990	3,292(100.0)	226(6.8)	503(15.3)	711(21.6)	1,074(32.6)	779(23.7)	
2000	2,243(100.0)	82(3.7)	219(9.7)	404(18.2)	553(25.3)	988(43.3)	593(26.4)
2005	1,813(100.0)	29(1.6)	83(4.6)	286(15.8)	420(23.2)	994(54.8)	
2010	1,566(100.0)	31(2.0)	70(4.5)	200(12.8)	390(24.9)	875(55.9)	
2013	1,520(100.0)	37(2.4)	64(4.2)	134(8.8)	360(23.7)	926(60.9)	

○ 10년후 누가 우리 농업경영을 이끌어갈 것인가?

< 표 7 > 연령별 농가 연령별 경영주 변화추이(단위: 명, %)

항목	합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1990	1,767,033	36,719 (2.1)	221,177 (12.5)	372,508 (21.1)	583,964 (33.0)	229,483 (13.0)	323,182 (18.4)
1995	1,500,745	12,311 (0.8)	134,201 (8.9)	272,494 (18.2)	447,256 (29.8)	262,997 (17.5)	371,486 (24.8)
2000	1,383,468	7,270 (0.5)	84,246 (6.1)	237,737 (17.2)	348,067 (25.2)	254,390 (18.4)	451,758 (32.7)
2005	1,272,908	2,382 (0.2)	40,010 (3.1)	185,849 (14.6)	302,852 (23.8)	192,325 (15.1)	549,490 (43.2)
2010	1,177,318	1,696 (0.1)	31,447 (2.7)	140,479 (11.9)	287,139 (24.4)	170,809 (14.5)	545,748 (46.4)
2013	1,142,031	514 (0.0)	13,072 (1.1)	92,895 (8.1)	267,378 (23.4)	156,720 (13.7)	611,452 (53.5)

2. 미래 농업주체의 역할

1.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본 미래 농업주체의 역할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

1. 농업: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농어업인: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어촌: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2조> 기본이념으로 본 미래농업주체의 역할

2. 농어업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소득달성)
1. 농업: 국민에게 농식품 안정 공급(농산물 수급조절 역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 수행(농업환경보호)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문화기반)
3. 농어촌: 전통과 문화 보존,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농업공간)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농어촌공간보전)

2. 그러나 농업현실은 어떤가? : 복합하고 다양하다

- 들녘내 농가들은 경영요소(노동력, 토지, 농기계 등의 소유)가 다르고, 경영요소의 결합형태인 경영조직도 달라서 생산성, 수익성도 다름.
- 연령별, 가구원 구성원수, 경지의 소유규모와 소유형태, 농기계 소유정도 차이
- 노동력의 이용형태, 경지의 이용형태, 농기계의 이용형태 등 경영조직의 차이
- 농산물 품질균일화, 비용절감과 경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농식품 안정공급 필요성 증대

들녘 전체(30~500ha) 다양한 농가분포		농가간 생산성·수익성 차이 극심	
계층	경영요소 특성	경영조직 특성	생산성·수익성
영세 고령농층 1ha미만 (55%)	○ 노동력: 고령화 부녀화 ○ 논면적: 영세 ○ 농기계: 없음	○ 노동력: 역할 미비 ○ 논 이용: 낮음 ○ 농기계: 농작업위탁	○ 생산성: 낮음 ○ 수익성: 낮음
중소농층 1~2ha, 3ha (25~30%)	○ 노동력: 50~60대 ○ 논면적: 중규모 ○ 농기계: 1~2대	○ 노동력: ○ 논 이용: 중간 ○ 농기계 이용: 비효율적·효율	○ 생산성: 중간 ○ 수익성: 중간
대농층 2~3ha이상 (15~20%)	○ 노동력: 40~50대 ○ 논면적: 대면적 ○ 농기계: 일관체계	○ 노동력: 40~50대 ○ 논 이용: 농가간 차이가 큼 ○ 농기계 이용: 비효율적·효율	○ 생산성: 차이 큼 ○ 수익성: 높음

3. 미래 농업주체(한국농수산대 학생)의 역할

가. 왜 지역단위에서 조직화 해야 하는가?

2013~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년.10, P.19)에서
농정대상을 개별경영체 분산적 접근에서 지역공동체 중심 종합네트워크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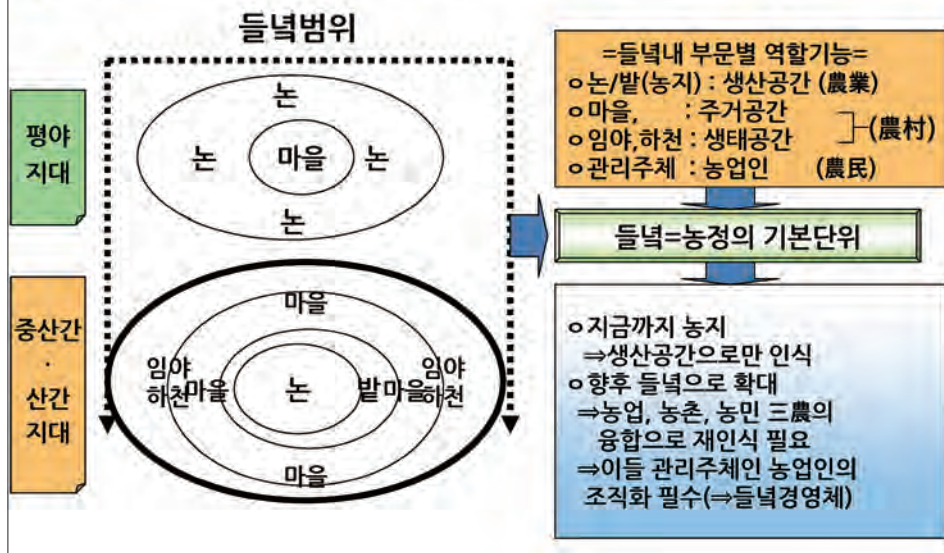
첫째, 농촌의 초고령화 사회에서
10년후 우리농업-농촌을 담당할 주체가 누구인가?

둘째, 분산된 개별농가로는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판매효율성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농촌공간 지킴이 역할도 어렵다.
이제 조직화만이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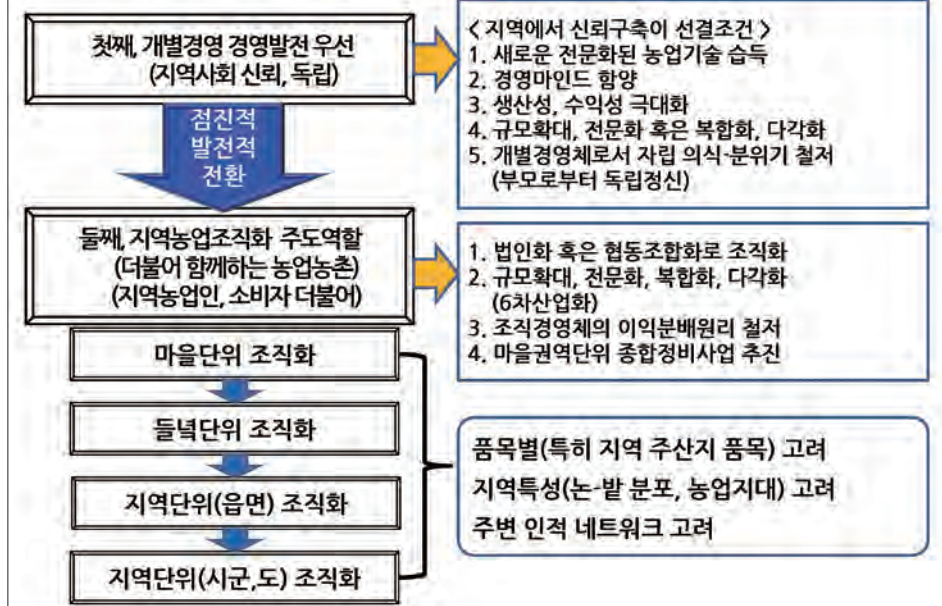
셋째, 지방자치제의 시대로 농업정책 실천의 주체는 시군 단위이다.
시군내에서 (마을단위→들녘단위→읍면단위→시군단위)로
품목별-특성별로 조직화는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이제 組織化는 理念論爭이 아닌 效率性의 문제이다
사람(勞動)과 기계(機械)의 조직화와 땅(土地)의 집단화,
단지화가 效率性의 가장 중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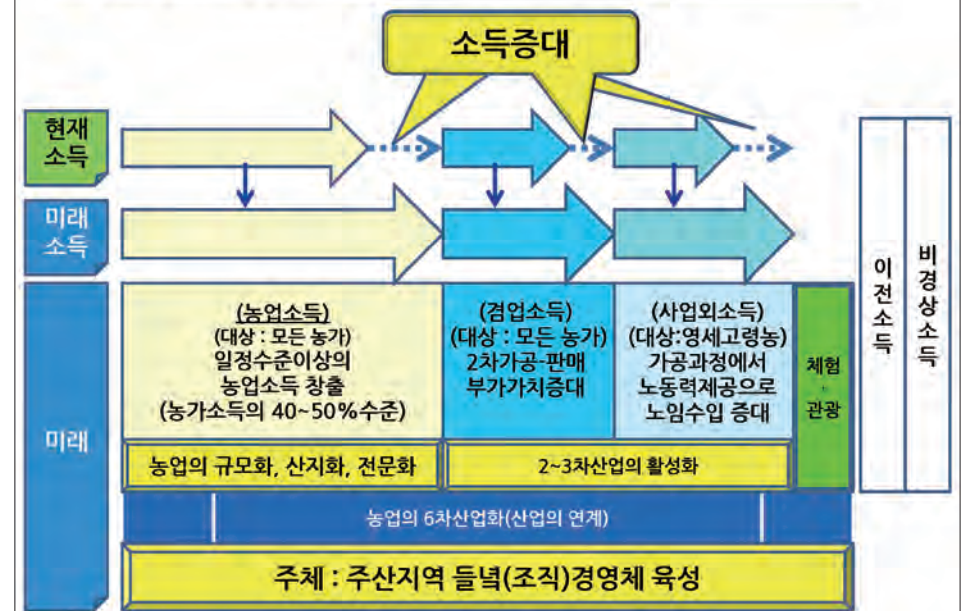
나. 미래농업 주체의 역할달성을 위한 지역에서 마을(농촌, 공간)과 들녘(농업, 생산)의 의미



다. 미래 농업주체(한국농수산대 학생)의 역할



라. 지역농업조직화에 의한 지역농가의 농가소득 증대모형



3. 미래 농업주체의 육성방안

1. 미래농업인 양성교육기관 현황과 문제점

가. 농업계 대학

- 4년대 농업생명과학대학 : 총 28개 대학(국립 16개, 사립 12개)
 - 미래 농업인 양성?
- 1990년대 중반이후 국립 농업전문대학기 4년대 대학으로 전환후 미래 희망농군으로 갈 수 있는 전문대학 졸업자 극히 적음(총 1,000여명)
 - 한국농수산대학,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 3개교
- 한국농수산대학 학생들의 의미와 역할 : 2050세대(?)

<표 8> 미래 희망농군 양성 전문대학 관련 현황(2014년)

시도	학교명	학과수	총정원	비고
경기	한국농수산대학	11	390	국립
충남	천안연암대학	7	520	사립
경기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단기사업교육시설로 전문대학 졸업 학력인증)	6	90	사립
		24	1,000	
기타	전문대학에 농업생산관련 분야는 극히 적고, 가공, 조리, 애완 부문은 중심			

나. 농업계 고등학교

- 미래 희망농군으로 갈 수 있는 농업계 고교졸업자 극히 미약
- 농업계 고등학교수 및 학과수 : 23개 학교, 96개 학과(학교당 4.2개 학과)
 - 3개 이하학과가 있는 학교수 비율 : 34.8%
 - 전체 학생수 : 약 2,000명(96개학과×평균 20여명)
- '12년 취업률 : 영농종사(0.2%), 농산업체 취업(13.2%)

<표 9> 미래 희망농군 양성 고등학교 학교수 및 학과수 현황(2012년)

구분	순수농고					순수수고		비고
	학교수	학과수	학과수별 학교수			학교수	학과수	
			3개이하	4~5개	6개이상			
광역시	5	25	1	2	2	1(인천)	10	
경기	4	12	2	2				
강원	1	2	1					
충북	3	15	1	1	1			
충남	1	7				1	1	4
전북	3	14	1	1	1			
전남	3	10	1	2		1	1	6
경북	1	6				1	1	7
경남	2	5	1	1		1	1	2
합계	23	96	8(34.8)	9(39.1)	6(26.1)	5	29	

마. 미래 소비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농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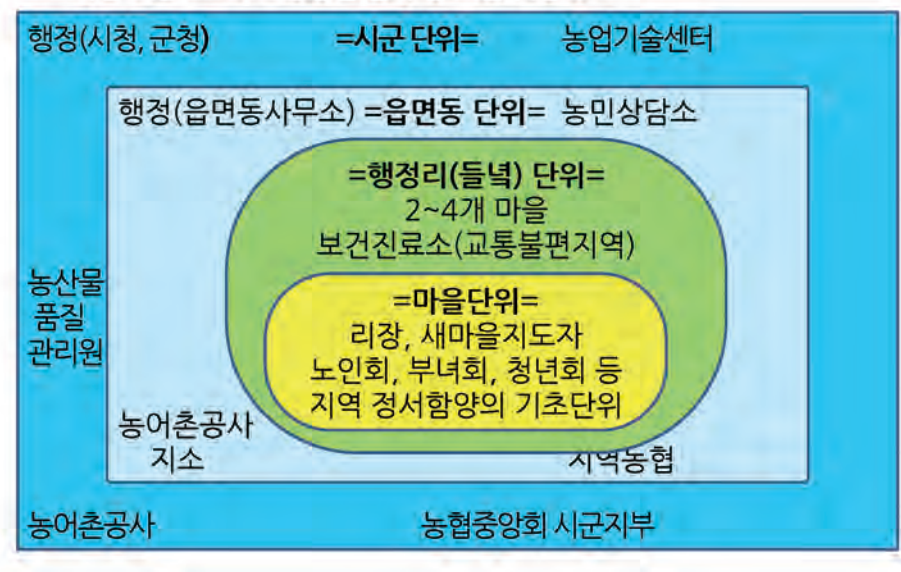


익산대학 어린이체험학습농장(2001~05년) 운영

익산대학 영농종사자 및 대학 4-H회원 농축산물 축제(1999~07년)

<사례> 익산대학 농축산물 축제와 어린이체험학습농장 운영

4. 역할달성을 위한 지원조직들 시군 단위 이하에서의 각 관련기관 어떤 모임으로 우리농업을 같이 끌고 갈 것인가?



2. 정부 미래 후계농업인 육성방안

농림축산식품부, [2013~17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2013년.10, P.70~72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부문

신규 후계인력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

- 추진목표 : '17년까지 창조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 12만명 육성
* 핵심경영체 : 후계농업경영인, 신지식농업인, 농업마이스터, 강소농 등

● 추진전략

① 창의적인 정예 핵심인력 양성

- 농고·농대 졸업생의 농업분야 취업, 창업 활성화 지원, 후계농업인 및 기업승계농의 영농정착 지원으로 정예인력 육성
- 품목별 전문 농업경영체의 선진 기술과 경영능력 전파 강화

② 탄탄한 가족 경영체 육성 및 농업법인의 건실화 유도

- 성장단계 및 경영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구축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경영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법인의 성장 지원

③ 도·농간 농산업 인력 연계체계 구축

- 도시 유희인력과 농업경영체 연계 시스템 구축, 단기 계절 외국인로자 도입 등 인력제도 개선을 통한 농촌 일손 부족 해소

가. 신규 후계인력 육성

- ◆ 농업계 학교 졸업자를 정예농업인력으로 육성, 농업의 경쟁력 강화
* 매년 1,800명 수준의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여 교육·지원

■ 목표달성 추진 전략

- 후계인력의 조기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술 습득 및 농업경영체 취·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현장실습교육 강화
 - 농고 실습시설 개보수, 농식품 분야별 마이스터고 지정(13: 2개소) 확대(교육부협), 농고·농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농대 학생과 선도농가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
- 최정예 신규 후계농업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 확대 운영**(재학생, '13: 390명 → '17: 600명)
 - 농업창업, 농업법인 취업을 제고 등을 위해 농고·농대에 농업분야 무역, 통상, 법률, 세제 등에 관한 심화교육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과 선도농업경영체(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등)와 연계하여 품목별 전문교육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나. 핵심인재 발전단계별 관리

- ◆ 농업인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핵심인재 관리체계 구축
* 농업마이스터 : ('13) 102명 → ('17) 300, 신지식농업인 ('13) 357명 → ('17) 450

■ 목표달성 추진 전략

- (후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인증제'를 도입('14), 우수 후계농업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
 - 농대 '농산업학과'(경북대 등 5개 대학) 운영으로 전문기술 습득 지원
- (농업경영인) 현장실습교육 확대('13: 76개소 → '17: 120), 체계적인 교육이력 관리(AgriEDU.net) 등을 통해 품목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
 -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과정을 지역·수출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
- (전문농업인) 신지식농업인('17까지 450명), 농업마이스터('17까지 300명) 지정을 확대하여, 컨설팅 및 현장교수 요원으로 활용
 - * 신지식농업인, 농업마이스터와 농고생, 후계농업인을 연계하는 멘토링 및 현장교육을 통해 선진 농업기술을 전국으로 전파
 - 전문농업인에 대해 지속적인 보수교육 및 해외시장개척 등 지원

3. 한국농수산대학 커리큘럼 : 지역농업조직화를 위해 보강

【교양공통】

□ 교양공통 필수 (4과목)

- 식생활과 건강 ○ 외래특강 I, II ○ 농업철학 ○ 친환경 농업

□ 교양공통 선택 (12과목)

- 결혼과 가정 ○ 인간생활과 생활과학 ○ 대학국어 ○ 사회체육
- 중급·고급 영어 ○ 초급/중급일어 ○ 초급/중급중국어
- 농업과학기초 ○ 국민경제와 농업 ○ 관광농업
- 농촌사회지도자론 ○ 농촌사회복지론

【농업기초】

□ 농업기초 필수 (7과목)

- 농기계 ○ 공통농기계연습 ○ 영농설계 ○ 컴퓨터와 정보기술
- 농특산물품질관리 ○ 농업경영 ○ 농업조직론

□ 농업기초 선택 (10과목)

- 분야별 농기계연습 ○ 농업공학 ○ GAP ○ 농산가공
- e-Biz(전자상거래) ○ 농업회계 ○ 농업법률 ○ 농업정책
- 농촌사회 ○ 세계화와 현대농업

【학과별 과목】

【필요 신규과목】: 지역농업개발론, 농업법인론, 조직갈등론 등 2학년 실습 : 국내외 선진 농업경영 학습을 위한 장기현장 실습중요

4. 미래농업 주체의 역할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들

○ 젊은 미래농업 주체의 역할

- 경영상의 부모로부터 독립→경영체 성장·발전→지역농업조직화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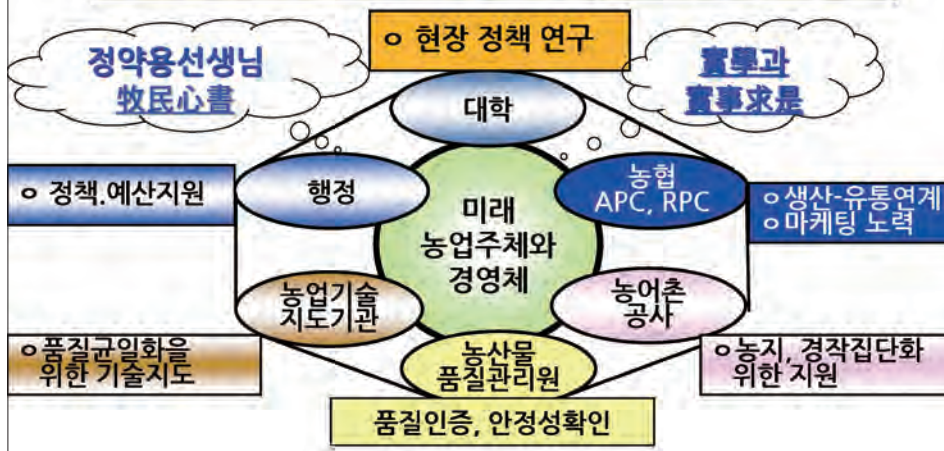
○ 역할 달성을 위한 교육·지원내용

- ① 젊은 농업인 경우 : 부모들의 특별지원 확보가 전제조건임
 - 스스로 독립정신(CEO역할의 의미부여)이 있어야 책임감이 강해져 생산성, 수익성이 높아져감.
 - 이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에 대한 교육실시
- ② 역할 단계별 다양한 교육 절대필요(눈높이 교육)
 - 농산물 재배기술, 마케팅 기술, 조직화 기술 등 교육필요
 - 회계마인드, 법인, 협동조합, 조직갈등관리, 인문학적 소양 교육 등
- ③ 정부 관련정책과 지자체 관련정책 철저히 인식 활용능력 배양
- ④ 기획(Plan)-실천(Do)-평가(See) 능력 배양
- ⑤ 주변 인적(조직체)-물적 자원 네트워크 형성 능력 배양
- ⑥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우수사례의 일반화 능력배양

5. 미래 농업주체 육성을 위한 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 시군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시
- 시군단위별로 미래농업주체 육성방안 구체적으로 설계

(예시) 수평적 산·학·연·관 미래 농업주체 육성추진단 구성과 역할



산머루농원의 6차산업

산머루농원 대표이사 서충원



1. 산머루농원 소개
2. 시설 운영 현황
3. 6차산업으로의 발전

1. 산머루농원 소개

서충원 (산머루농원 대표이사)

- 2000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
- 2004 캠핑장 영업 시작
- 2005 4-H 파주시연합 회장 역임
- 2006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교수 위촉
- 2009 산머루농원 체험장 개장
- 2010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대상 (머루주)
- 2011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 2012 산머루농원 대표이사 취임
- 2013 코리아 와인 어워즈 금상 (머루 드서) 외국인관광객 (인바운드 여행사) 유치
- 2014 NS홈쇼핑 런칭 (산머루원액100)



1. 산머루농원 소개

전국 최초 머루와인 제조·숙성 시설

산머루의 세계화 ... 감악산 산머루농원

상 호	산머루농원 영농조합법인	
위 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1리 67-1	
설립일	1995년 (농림부 전통식품 업체 지정)	
직원수	12명	
규 모	재배면적 : 50ha / 공장시설부지 : 약7,000㎡	

2. 시설 운영 현황

1. 재배·생산 현황



1차산업 (농업)

- 감악산 자락 50여 개 농가에서 산머루 재배
-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수확, 연간 약 300톤의 산머루 생산
- 친환경농산물, 경기도 G마크 등 인증 획득으로 건강한 농산물 입증

2. 시설 운영 현황

2. 제조·가공 현황



2차산업 (공업)

- 머루즙, 머루주 등의 가공식품 생산
- 지하 와인 숙성 터널에서 프리미엄 와인 숙성·생산
- HACCP, ISO 규격 등의 인증 획득으로 가공·생산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

2. 시설 운영 현황

3. 판매·체험 현황



3차산업 (서비스업)

- 산머루농원 내에 판매장·체험장 직접 운영
- 여행사와의 협약으로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 해외 바이어들과 활발히 미팅, 제품 수출 계약 체결
- 연 평균 7만 명의 관광객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진행

◎ 산머루농원 이야기

천사의 몫 (Angel's Tip / Angel's Share)



STORY

오크통에서 숙성하는 와인은 통에 주입 시 정량을 주입하려다 안에서 조금씩 증발하여 다시 빼낼 때는 처음 주입했을 때보다 술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와인의 증발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사라지는 와인을 서양에서는 와인이 잘 숙성되도록 지켜주는 천사에게 바치는 몫이라 하여 천사의 몫 (Angel's Tip / Angel's Share)이라고 한다.

산머루농원에서 생산·숙성되는 드라이 와인은 오크통에서 5년 이상 숙성되므로 증발을 통해 양이 줄어들며, 와인 숙성 터널 초입에 그려져 있는 천사 벽화를 통해 그 전설을 확인할 수 있다.



3. 6차산업으로의 발전

1. 서비스(체험·판매 구조)의 차별화

○ 체험 상품의 다양화

농촌 체험마을에서 일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비누잼 만들기, 나만의 와인 체험 (발상의 전환) 등 산머루농원만의 고유한 체험 상품 개발, 동시에 수확체험, 와이너리 투어 등 일반적인 체험 상품도 진행하여 다양한 체험객들의 기호에 대응.



○ 체험장 시설의 현대화

전통적·향토적인 분위기 일색의 평범한 농촌 체험장이 아닌 현대화되고 위생적인 인상의 체험장 시설로 수도권 유일의 와이너리라는 메리트에 걸맞는 분위기 차별화와 동시에 농촌 체험장에 대한 체험객의 거부 반응 감소 효과.



3. 6차산업으로의 발전

1. 서비스(체험·판매 구조)의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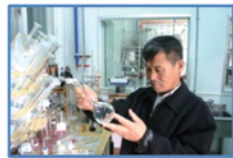
○ 캠핑장 유치로 체험객 유인

약 2천 평의 머루밭을 갈아엎고 캠핑장과 부대 시설을 유치하여 채소 수확과 수영, 낚시 등 다양한 편의 체험을 제공하고 주말 캠핑장 고객 와이너리 투어 등 산머루농원과의 연동 체험 진행으로 많은 체험객 유인.



○ 수많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과 연구 활동

고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등의 대학 연구팀과 머루의 효능과 가공 방향성, 6차산업에 대한 공동 연구 진행. 더불어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여주자연농업고등학교, 용인바이오고등학교 등 다수 고등교육기관과의 실습생 협약으로 6차산업 후진 양성



3. 6차산업으로의 발전

1. 서비스(체험·판매 구조)의 차별화

○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

공격적인 판촉 전략과 적극적인 여행사 접촉, 특히 외국 현지에서 발벗고 뛰는 세일즈로 콜라투어, 라이언투어 등 중화권 국가에서 영향력 있는 여행사와 협약,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장소를 협찬하여 산머루농원을 선전하고 체험객의 성향 전반에 대한 피드백으로 맞춤형 체험 제공으로 대만,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아시아 관광객 적극 유치.



3. 6차산업으로의 발전

2. 상품의 고급화

○ 머루 드서 (Meoru de Seo) 세트

용기항아리에서 3년 숙성하는 스위트 (Sweet) 와인과 오크통에서 5년 이상 숙성하는 드라이 (Dry) 와인으로 구성. 특히 드라이 와인의 경우 2006년산 최고급 머루로 현재까지 8년 기량 숙성한 빈티지 와인. '서가네 머루'라는 의미로, 음차할 경우 머루 드세오로 들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네이밍. 대한민국 과실주 품평회, 코리아 와인 어워드 등의 주류 공모전에서 대상 및 금상을 수상.



3. 6차산업으로의 발전

2. 상품의 고급화

○ 머루드서 산머루원액 100

100% 산머루 원액만을 담은 프리미엄 과실즙. 열처리 방식으로 살균하여 보존료와 인공색소, 당분 등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과실즙. NS홈쇼핑에도 런칭된 바 있는 상품.



○ 도로시 2호 선물세트

선물세트용으로 나온 기존 도로시 6호, 7호 상품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개량하고 동시에 낮은 유통마진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스위트와인을 기반으로 하며 주주 구경, 신정 등의 명절 때 선물세트로 나가는 상품.



3. 6차산업으로의 발전

2. 상품의 고급화

○ 머루드서 2L 벌크 스위트 와인

머루드서 스위트 와인의 실속형 포장 제품. 비닐팩과 카톤 상자 포장으로 생산 단가를 줄이고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어필. 수도꼭지 모양의 버튼으로 짜먹는 소소한 재미도 있으며 코르크 마개 봉인이 아니므로 공기와의 접촉으로 인한 와인 산화 현상도 방지하여 유통기한 연장 효과.



○ 산머루농원 이야기

나만의 와인 - 근로에서 체험으로, 발상의 전환!



STORY
와인을 병에 담아 코르크 마개를 잠그고 포장을 드라이 처리(무명)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인력이 들어가는 단순한 근로 행위이며 그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찾기 힘들다.

하지만 산머루농원에서는 발상을 전환하여 평범한 근로 행위를 손님이 직접 즐기는 체험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일련의 과정에 손님이 직접 참여하는 '나만의 와인'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인바운드 여행사와의 협업 이래 산머루농원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나만의 와인'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체험객이 자신만의 와인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3. 6차산업으로의 발전



MBC 우리결혼했어요 2013.10.05 방영분

3. 6차산업으로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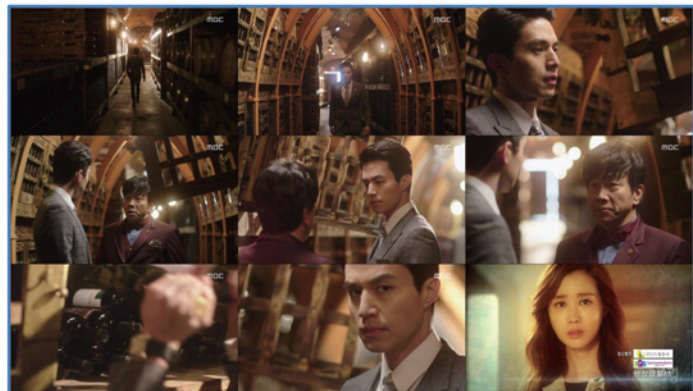
MBC 우리결혼했어요 2013.10.12 방영분

3. 6차산업으로의 발전



채널A 新대동여지도 2014.06.21 방영분

3. 6차산업으로의 발전



MBC 호텔킹 2014.04.12 방영분

◎ 산머루농원 이야기

산머루농원과 파주에 오면 富者가 되고 행운이 따른다



STORY
산머루농원에서 5km 떨어진 곳에는 조선의 대표학자인 이율곡과 그의 어머니이자 조선의 대표적 여성학자인 신사임당의 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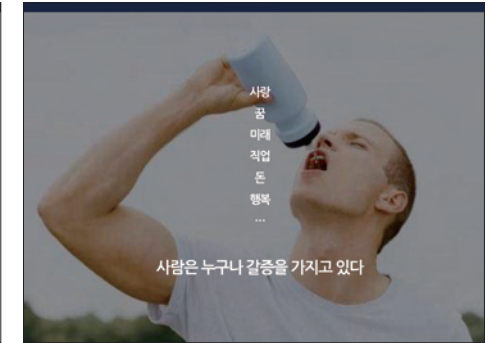
대한민국에는 묘를 만들 때 풍수지리 등 많은 것을 고려하여 자손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당에 묘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며, 산머루농원은 임진강과 감악산으로 둘러져 있어서 예로부터 재물운이 있는 명당이라 일컬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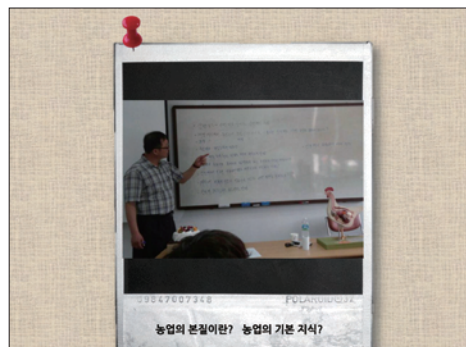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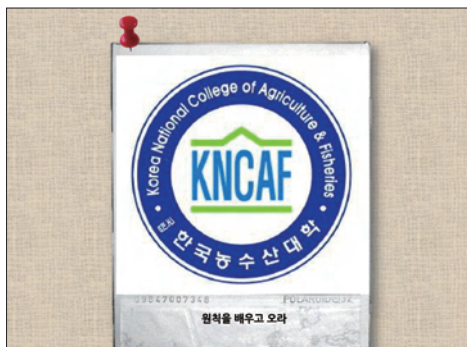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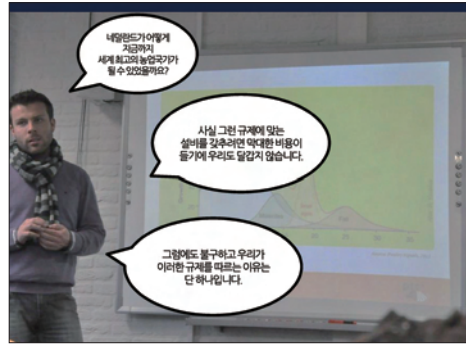
특히 신사임당과 이율곡 가문은 대한민국 화배 중에서 유일하게 모자 모두가 화배 인물로 선정된 집안으로써 파주와 산머루농원이 있는 곳은 풍수지리적으로 재물운이 따른다는 속설이 있다.

나의 꿈 나의 미래



1. 목마름에 대하여
2.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강연
3. 갈증을 느끼며 한국농수산대학 입학
4. 느낀 점
5. 남광민의 계획









“대한민국 농업의 성장동력, 청년 인력 육성으로 결정된다”

한농대,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이다’ 세미나 개최

국립한국농수산물대학(총장 남양호, 이하 한농대)은 23일(목) 오후 2시 교내 대강당에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청년농부·역대농업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쌀 관세화, 한·중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농업 현실을 진단하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농업 전문가, 한농대 졸업생 등이 발표자와 주요 패널로 참석한다.

세미나 개요

2014년 10월 23일(목) 14:00~17:30, 한국농수산물대학 대강당
주 최 : 한국농수산물대학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날 세미나는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이다’라는 주제로 충북대학교 성진근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

- 조가옥(전북대) 교수와 양기조(용추농업회사) 대표가 각각 ‘우리 농업 미래를 이끌 농업주체의 육성과 역할 방안’과 ‘인류가 망하지 않는 한 농업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수출 지향적 농업 분위기 조성 2, 3차 산업이 결합한 융·복합형 농업을 통해 미래 농업의 성장 방안 모색(성진근 교수)
농업계 학교 졸업자를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농업인의 성장 단계 별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핵심인재 관리 체계 구축(조가옥 교수)
농업으로 성공하려면 목표에 목숨 걸고 성실하게 일하고, 나만의 매력을 갖추면서, 농업에 미쳐야만 가능(양기조 대표)
- 이어서 한농대 1기로 과수학과를 졸업한 서충원 산머루 농원 대표가 ‘산머루 농원의 6차 산업 운영’을 발표하고, 지난 8월 트랙터로 전국일주를 해 화제가 됐던 중소기업학과 3학년 남광민 씨가 ‘나의 꿈, 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산머루 농원의 성공 요인에는 체험행사의 다양화, 상품의 고급화, 외국 관광객 유치 등 ‘차별화’에 있으며, ‘생각의 차이’가 산머루 농원의 6차 산업을 가능케 함(서충원 대표)
졸업 후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생산, 가공, 유통을 하는 양계전문 기업을 창업하여 세계인을 상대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남광민 학생)
- 끝으로 남양호 총장을 좌장으로 5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패널 : 김연백(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김태운(교육부 직업교육 정책과 장학관), 마상진(농촌경제연구원), 김성이(농정원 교육기획팀장) 현청규(한농대 졸업생 총동문회장)

특히 종합토론에서는 대한민국 농업의 성장 동력인 ‘청년 농업 인력 육성’에 대한 패널 간 다양한 인력 육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연속기획

10년 부활 · 1억 대

젊은농업, 미래농업 세미나

2014.10.23

장소 : 한국농수산대학 대강당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성진근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양기조
(용추농업회사법인 대표)



조가옥
(전북대 교수)



서충원
(산머루농원 대표이사)



남광민
(한농대 재학생)



세미나 모습



토론회 모습